

2. 인문계열 II

■ 문제배경 설명 : 문제 1 ~ 문제 2 제시문

2016년도 수시논술 모의고사(인문계열 II)에 출제된 제시문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꿈’과 ‘유토피아’에 대한 논의로 연장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제시문들을 발췌하였다. ‘꿈’의 경우 때론 몽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계층 또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앙계획적인 동원 체제, 그리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 사상과 대비되는데, 특히 현대의 많은 참사와 부작용들이 이러한 계몽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들 사이의 연관성은 자못 깊다. 이 논술에서는 수험생들이 인간의 꿈과 유토피아를 그리는 성향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어떻게 구별해내고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가를 측정코자 하였다.

제시문 [가]는 장자크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의 일부로서, 루소가 사회의 박해를 피해 시골에 숨어들어 살면서 비로소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러한 느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몽상’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만족감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인류의 진보와 행복이 가능하다는 계몽주의 사고방식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낭만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색감을 지니고 있다.

제시문 [나]는 도넬라 메도즈 등이 공저한 『성장의 한계』 결론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꿈’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다. 인류의 진보와 발전이 20세기에 들어와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고민들이 이 저술의 문제의식을 형성하는데, 무엇보다도 저자들은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행동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 사이에 ‘꿈’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조차도 꿈을 단련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다.

제시문 [다]는 제임스 스콧의 『국가처럼 보기』에서 소개된 근대화 프로젝트, 즉 ‘하이 모더니즘’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근대 계몽주의의 산물인 하이 모더니즘이 이성과 합리성,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보사상과 더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서 근대국가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하이 모더니즘은 원래의 취지와 달리 20세기에 들어와 인류의 불행을 가져온 대규모 참사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자는 하이 모더니즘의 공과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이광수의 『무정』에서 발췌한 글이다. 『무정』은 ‘문명조선(文明朝鮮)’으로의 발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에 나온 작품이다. 제시문에서 형식과 병욱은 신문명을 받아들이고, 과학을 받아들이며, 교육과 실행으로 조선 사람을 계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형식과 병욱은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선 민족을 위함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선인이 문명을 받아들여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주체로 서게 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소수의 선각자들이 문명을 받아들여 조선인에게 시혜를 끼치는 구도를 지향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토마스 모어의 1516년 저작 『유토피아』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다듬은 글로 고등학교 도덕교과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의 원전부분이다. ‘이 세상에 없는 곳’과 ‘지상낙원’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유토피아’라는 말의 유래를 낳은 이 소설에서, 저자

는 당시의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도 평등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고 있다. 본 제시문은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유토피아인들이 평등하게 노동하고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건전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제시문 [바]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1624년 저작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다듬은 글로 고등학교 도덕교과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의 원전부분이다. 서양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인 베이컨은 이 책을 통해 인간이 일구어내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사회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인 이상사회를 드러내주고 있다. 본 제시문은 벤살렘 왕국의 솔로몬 학술원 소속의 한 과학자가 설명하는 이 나라의 여러 진기한 면모를 통해, 과학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과학지상주의 유토피아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문제 2의 <인용문>인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은 예의 기원과 운용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고전인데, 중심 내용은 제왕의 예악의 연혁에 관한 것이다. 공과 사가 대립된 사회제도와 상황을 ‘대동’과 ‘소강’으로 대비해 묘사하고 있다. 극단적인 욕구 자체와 검약을 강조하는 대동사회는 정적이고 금욕적인 동양의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받아들여졌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몽상’에 대한 제시문 [가]의 입장과 ‘꿈’에 대한 제시문 [나]의 입장을 대비하여 논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형식과 병욱의 입장을 비판하시오. [20점]

문제 1. (1)

■ 출제의도

이 문제는 인간의 현재 상태를 넘어서 보다 나은 상태를 이루는 데 있어 ‘꿈’이 갖는 역할과 의미가 두 제시문 사이에서 어떻게 유사하고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묻고 있다. 두 제시문에서 ‘몽상’ 또는 ‘꿈’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대상이나 내용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이러한 차이까지 답안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채점기준이 된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평범한 글 속에 담겨 있는 저자의 생각들을 대비하여 살펴보고 이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려는 것이 이 문항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우수답안

제시문 [가]의 저자는 평화로운 상태를 지향하는 마음가짐으로 내면의 고요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 내면의 감정이 너무 가라앉아 있거나 지나치게 걱정적이어도 곤란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행복한 상상만 가능하다면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마음의 평화가 세상과 동떨어진 ‘섬’에서 더욱 달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변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으면서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 침잠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능력의 핵심에 그가 말하는 ‘몽상’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제시문 [나]에서도 ‘꿈’의 중요함이 부각되고 있는데, 꿈이라는 것이 자칫 허황되고 비현실적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손 치더라도 꿈이 있어야만 행동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꿈꾸

는 ‘지속 가능한 세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꿈’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논지를 이루고 있다.

두 제시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몽상’과 ‘꿈’은 인간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인간 내면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 힘을 불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점에서 유사하다. 제시문 [가]의 경우에는 저자 ‘개인’ 차원의 꿈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반면,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꿈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제시문 [가]의 저자가 스스로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몽상’을 즐기려는 데 비해, 제시문 [나]의 저자는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꿈’이 지닌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두 제시문은 모두 ‘꿈’이 인간 생활의 보다 나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우수답안 분석

답안의 전반부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그 핵심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두 제시문을 대비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두 제시문이 주장하는 바를 핵심어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몽상’과 ‘평화’, ‘섬’, ‘자연’ 등과 같은 단어들 부각되는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공유’나 ‘지속 가능한 세계’ 등의 단어들 강조됨으로써 ‘꿈’을 중심으로 한 저자의 생각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우수답안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답안의 후반부에서는 두 제시문이 공유하고 있는 ‘꿈’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인간 내면의 모습에 관련된 점 등을 언급함으로써 두 제시문 사이의 유사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 두드러진 차이점으로서 제시문 [가]의 경우 개인주의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속성을, 제시문 [나]의 경우 공동체지향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속성을 부각하여 ‘꿈’에 관한 두 제시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적절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문제 1. (2)

■ 출제의도

『무정』에 나타난 계몽주의를 하이 모더니즘 국가 차원에서 비판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광수는 소설 『무정』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 사회 계몽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 방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는 문제이다. 사회학적 지식으로 소설에 나온 계몽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문제의 구성은 영역 통합적인 시도이며 융합 학문적 접근이다.

■ 우수답안

제시문 [다]는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에 영향을 끼친 ‘하이 모더니즘’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에 따르면 근대국가는 자연과 사회를 행정적으로 질서화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열망이라 할 수 있는 하이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를 무력화 시켰다. 엘리트 주도의 국가 주도 사회공학으로 표출된 하이 모더니즘은 20세기에 들어와 많은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다]는 밝히며 그 위험성과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 [라]의 형식과 병욱은 [다]가 비판하고 있는 ‘하이 모더니즘’과 과학만능주의, 계몽주의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형식과 병욱은 조선 민족이 소수의 선각자들의 교육과 실행을 통해 신문명과 과학을 받아들이

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지식층이 무지한 민중에게 시혜를 끼침으로써 계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형식과 병욱의 이러한 사고는 과학적·기술적 진보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엘리트주의적 사고라는 점에서 ‘하이 모더니즘’과 대단히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라]의 형식과 병욱의 사고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첫째는 형식과 병욱이 과학만능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형식과 병욱은 조선 민중에게 과학을 줌으로써 그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근대의 과학기술은 분명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며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간성과 소통의 상실, 환경 파괴, 물질만능주의의 도래라는 폐해를 낳으며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이른바 ‘위험사회’가 도래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형식과 병욱은 이러한 점들은 간과한 채,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이다. 둘째는 형식과 병욱이 엘리트주의적 사고에 빠져 민중과 시민사회가 근대화의 주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과 병욱은 조선인이 문명을 받아들이고 시민사회를 정립하여 스스로 근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은 온전히 배제한 채, 소수의 선각자들을 통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계몽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은 소수의 다수에 대한 폭압의 형태로서 발현될 위험을 지니고 있고, 아래로부터의 계몽보다 그 실천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형식과 병욱은 이를 간과한 채, 엘리트주의로 계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우수답안 분석

이 답안은 문항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지켜, 제시문 [다]의 관점을 분석하고 이 관점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형식과 병욱의 계몽주의 태도를 비판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대국가 성립과정에 영향을 끼친 하이모더니즘에 대한 이해와 그 폐해를 정확히 짚고 있으며, 과학적·기술적 진보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엘리트주의적 사고 측면에서 형식과 병욱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문제 2. 아래 인용문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이상사회의 모습을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인용문>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에 공의(公義)가 구현된다. 현자를 지도자로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편안한 여생을 보내며 장년은 일할 여건이 보장되고 어린이는 길러 주는 사람이 있으며, 의지할 곳 없는 과부, 홀아비, 병든 자도 모두 부양받는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사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 남을 해치려는 음모나 도적, 난적(亂賊)도 발생하지 않아 집집마다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지금은 대도가 숨어 버리고 천하는 개인의 가(家)가 되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어버이와 자기 자식만을 챙기며, 재화와 노동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다. 왕위의 세습을 예(禮)라 하고 단단한 요새를 만들고 예의를 기강으로 삼아 군신 관계를 바로 잡고, 부부·부자·형제 관계를 화목하고 조화롭게 한다. 제도를 만들고 밭과 마을의 경계를 세웠으며 용맹과 지혜를 현명하게 여기고 자기를 위하여 공을 세우니, 이로 말미암아 음모가 생기고 병란도 생긴다. 우·탕·문왕·무왕·성왕·주공은 모두 성실하게 예를 따른 사람들로, 의를 드러내고 신을 입증하였으며, 과실을 밝히고 인을 본받으며, 사양하는 것을 가르쳐 백성에게 상칙(常則)을 보여주었다.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세가 있는 자라도 제거되었다. 이런 상태를 소강(小康)이라고 한다.

■ 출제의도

인용문과 제시문 [마], 제시문 [바]는 모두 이상국가에 대한 내용으로, 인용문은 동양의 이상국가 형태에 대한 것이고, 제시문 [마]와 [바]는 서양의 이상국가에 대한 글들이다. 인용문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입장을 대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편의 글에 나타난 이상사회의 성격을 각기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세 편의 글에 나타난 이상사회의 내용이 각기 요약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그 후 인용문에 나타난 두 가지 형태의 사회, 즉 대동사회와 소강사회를 구분한 후, 이를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이상사회의 요소들과 연관 지어 대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우수답안

인용문과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는 모두 이상국가에 대해 쓴 글로서 제시문 [마]와 [바]가 서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인용문은 동양의 이상국가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우선 인용문에서는 궁극적 이상국가의 형태로 ‘대동(大同)’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동 이후의 사회를 ‘소강(小康)’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소강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세습이 가능하여 권력을 사유화하고, 경제적으로도 재물에 대한 사유화가 인정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되고 가족 단위의 삶이 강화된다.

제시문 [마]는 서양의 유토피아에 대한 글이다. 유토피아의 그리스 어원을 보면 ‘어디에도 없는 곳’, ‘좋은 곳’이라는 이중의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한다. 제시문 [마]의 저자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기술 문명이나 물질세계의 정복과 같은 내용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동하고 재화를 공유하며 욕망을 절제하며 지내는 평등사회,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로 그려진다. 제시문 [마]의 유토피아는 인간이 직접 노동하여 유지되며, 사유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쾌락을 추구하고 최소한의 권력과 통제로 평화롭게 유지되는 원시공동체적 형태의 사회를 연상시킨다. 한편 제시문 [바] 역시 서양이 제시하는 유토피아의 한 형태로, 이 유토피아는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생로병사 및 경제적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회이다. 혁명에 가까운 과학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며, 통치자들 역시 과학의 힘을 믿는 과학기술자들이다. 그러므로 제시문 [바]의 유토피아는 과학 지식을 장악한 엘리트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며, 뛰어난 통치자가 시혜적 태도로 다스리는 사회이다.

제시문 [마]는 인용문의 대동이 이루어진 사회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대동사회는 예에 의해 정치나 경제, 사회적 제도 등이 마련된 사회인데 그러나 일상 속에서는 그런 제도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예에 의한 제도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내재화된 사회라 하겠다. 두 개의 제시문 중 이와 유사한 연관성을 보이는 글은 제시문 [마]에 나타난 유토피아이다. [마]의 유토피아 역시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향한 제도를 마련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의 권력과 통제로 유지하려 하며, 위계질서보다 평등이나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역시 대동사회와 제시문 [마]의 유토피아가 상통하는 지점이다.

제시문 [바]는 인용문의 소강이 이루어진 사회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소강사회는 대도가 숨은 이후에 나타난 사회로, 대동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사회라면 소강사회는 그 차선책 정도에 해당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의 세습, 사유재산, 가족 단위의 삶,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한 통치 등을 인정하는 소강사회는 차별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이다. 소강사회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글은 제시문 [바]이다. 제시문 [바]에 나타난 유토피아 역시 소수 과학 엘리트들의 뛰어난 과학적 힘과 통치력, 통치자의 덕목에 해당하는 시혜적 태도 등에 힘

입어 질서가 유지되는 국가 형태로, 이는 몇몇 뛰어난 유가적 군자들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소강사회의 형태와 연관 가능하다. 또한 제시문 [바]의 유토피아는 물질문명의 풍요를 약속하고 욕망의 절제나 덕 등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다. 소강사회에서도 예를 강조하기는 하나 대동사회에서 예를 대하는 태도와 비교하면 소강사회에서는 예나 의를 거시적, 미시적 통치의 방식으로 수단화했다. 이처럼 정신적, 도덕적 미덕이나 심성 등에 대해 약화된 태도를 보인다는 점 역시 소강사회와 제시문 [바]의 유토피아를 연결해 주는 고리일 수 있다.

■ 우수답안 분석

이 답안은 우선 인용문과 두 가지 제시문에 나타난 이상국가의 성격에 대해 충실하게 요약하였고, 인용문에 제시된 대동과 소강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특징들을 견주어 보아 대동과 제시문 [마]를, 소강과 제시문 [바]를 연관하여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답안은 문항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답하였고, 인용문 및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이상국가의 내용을 예문 그대로의 표현이 아닌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요약하였다. 동양과 서양의 유토피아가 다르고, 동양의 이상국가를 논할 때에도 대동과 소강의 경우가 구별되며, 또 같은 서양의 유토피아라 해도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이상국가의 모습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의 특징을 잘 구별하여 정리하고 대동을 제시문 [마]와 관련짓고, 소강을 제시문 [바]와 연관 지어 각각의 특징은 특징대로 살피면서, 둘 사이의 공통점 역시 잘 드러나게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답안이라 하겠다.

문제 3. <표 1>은 여러 국가의 연간 1인당 GDP 및 인구통계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표 1> 국가별 1인당 GDP 및 인구

국가	1인당 GDP(\$)*	인구(명)
모나코	100,000	32,620
버뮤다	72,296	64,000
룩셈부르크	56,625	479,993
.....
기니비사우	140	1,541,040
부룬디	110	7,837,981
콩고민주공화국	100	62,522,787

2000년 미 달러화 불변가격 기준

- (1) 국가별 부(wealth)의 수준은 미 달러화로 표시한 1인당 GDP로 측정할 수 있지만 1인당 구매력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햄버거 하나에 미 달러화 기준으로 5달러이고, 모나코에서는 2달러라고 할 때 구매력 기준으로 모나코의 1인당 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몇 배인지 추정하시오. [15점]
- (2) 다음의 <표 2>는 <표 1>에서 고려한 일부 국가의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한 1인당 GDP를 나타낸 것이다. 소득분위란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20%씩 5단계로 나눈 집단을 말한다. 두 표를 참고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상위 소득 집단인 4분위와 5분위를 합한 집단의 1인당 GDP는 얼마인지 추정하시오. [15점]

<표 2> 국가 분위별 1인당 GDP

국가	분위	1인당 GDP(\$)*	인구(천명)
콩고민주공화국	1	30	12,504
콩고민주공화국	2	40	12,504
부룬디	1	49	1,567
.....
기니비사우	1	51	308
콩고민주공화국	3	70	12,504

* 2000년 미 달러화 불변가격 기준

■ 출제의도

이 문제들은 한 나라의 부를 통계치를 사용하여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보통 1인당 GDP가 이용되는데, 여기에 구매력을 감안하여 부를 측정하기도 한다. 1번 문항은 이에 대한 간단한 응용문제이다. 한편 1인당 GDP는 한 나라 안에서 분배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위별 소득통계가 활용되는데, 2번 문항은 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 우수답안

(1) 모나코의 1인당 GDP는 콩고민주공화국의 1,000배(100,000달러 / 100달러)임을 알 수 있다. 본 문제에서는 일국의 부를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의 1인당 GDP로는 햄버거를 20개 살 수 있으며, 모나코의 1인당 GDP로는 햄버거를 50,000개 살 수 있다. 따라서 구매력 기준으로는 모나코의 1인당 부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2,500배(50,000/20)가 된다.

(2) <표 1>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전체의 1인당 GDP가 100달러이며, <표 2>에서 콩고민주공화국 1분위, 2분위, 3분위의 1인당 GDP가 각각 30달러, 40달러, 70달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5분위 전체의 1인당 GDP는 $(30+40+70+2 \times X) / 5 = 100$ 의 방정식을 풀면 된다. 답은 180달러이다.

■ 우수답안 분석

1번 문항은 구매력으로 평가한 나라간 부의 비교에 관한 문제이다. 1인당 GDP와 구매력간의 관계를 알아야 본 문항에 대해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 단순 계산 착오 등에는 부분 점수가 부과될 수 있겠다. 2번 문항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많이 이용되는 소득분위별 소득을 이용한 문제이다. 이는 소득분위별 소득의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소득분위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에는 표에서 제시된 각 분위별 인구가 해당 국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라는 것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단순 계산 착오 등에 부분 점수가 부과될 수 있겠다. 한편 4분위 및 5분위의 1인당 GDP를 합산한 숫자를 정답으로 잘못 제시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약간의 부분 점수가 부과될 수 있겠다.